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11.01. 현재 122개 업체) 및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은 우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고, 다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지원²⁾할 수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목 차 〉

□ 중국, 내하 운송 체계 구축 본격 추진-----	2
□ 탄자니아-르완다-부룬디 간 철도연결 공사 4년 후 완공 목표-----	3
□ DP World, 향후 2년간 9개 개발 프로젝트에 15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4
□ 브라질 BTP사 산토스항 신규 터미널 공사 자금 조달-----	5

1) 연락처: 김찬호 책임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김성야 연구원(02-2105-2897, sungyakim@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KMI 국제물류위클리

□ 중국, 내하 운송 체계 구축 본격 추진

- 중국 신화망에 따르면, 3월 24일, 중국은 3대 고등급 내하 건설을 동시에 착공함
 - 각각 후베이장강 징장항로(湖北长江中游荆江航道, 이하, 장강간선), 광시서강 로우커우항운 허브(广西西江老口航运枢纽이하, 서강항운), 장수징형운하 수저우구간(江苏京杭运河苏州段, 이하, 징형운하) 등 내하 개발임
- 지난 1월, 중국 국무원은 “장강 등 내하 수운 발전 가속화에 대한 의견(关于加快长江等内河水运发展的意见)을 공포한바 있음
 - 의견에서는 향후 10년간 내하운송체계를 개선 및 건설할 것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국가발전 전략으로 간주하였음
 - 2020년까지 내하 운송 물동량 30억 톤 이상을 전망하여, 국가 고등급 항로 1.9km를 건설하고, 장강 간선 항로를 핵심으로 운송체계를 건설하는 전략임
- 중국 교통부는, 향후 5년간, 중국은 내하 운송 건설에 총 2,000억 위안을 투자할 것이며, 그 중 중앙 정부 투자는 450억 위안이라고 발표하였음
 - 2015년까지 국가 고등급 항로 1.3만km 건설하여 약 70%를 완공할 계획임
 - 장강간선의 경우, 석탄 및 철광석 운송량 7억 톤 이상, 징형운하는 석탄 운송량 1.4억 톤, 서강항운 간선은 석탄 및 시멘트 운송량 5,000만 톤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아울러, 중국정부가 이러한 국가 물류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내 종합운송체계를 개선하여 연강(沿江) 산업구조를 최적화 하는데 있으며, 녹색물류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의미를 둔 것으로 분석됨

자료: <http://www.xinhuanet.com/> 2011. 3. 24./ <http://www.chinaports.org/> 2011. 3. 25./

김성야 연구원(☎ 02-2105-2897, sungyakim@kmi.re.kr)



□ 탄자니아-르완다-부룬디 간 철도연결 공사 4년 후 완공 목표

- 탄자니아 자카야 키크웨테(Jakaya Kikwete) 대통령이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에서 열린 East African Rail Investment Forum에서 탄자니아-르완다-부룬디 간 철도연결 공사를 4년 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이 프로젝트를 위해 2009년 3국 정부에서 개발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바 있으며, 이사카(Isaka)-키갈리(Kigali)-지테가(Gitega)-Musongati 구간의 26.3억 달러 규모의 표준궤 신규노선 공사와 다르에스살람-이사카 구간 공사로 구성되어 있음
- 다르에스살람-이사카 구간은 크게 3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현 구간의 복선화 공사 약 10억달러, 표준궤로의 업그레이드 약 9.1억 달러, 개발예정인 바가모요 항을 경유하는 신규 표준궤 공사 24.7억 달러이며, 다르에스살람-이사카 구간의 시나리오에 따라 전체 프로젝트의 규모는 35억~51억 달러로 달라지게 됨
- 키크웨테 대통령은 '개발 자원(concessional sources)의 대출'과 함께 'BOT(Build-Operate-Transfer) 또는 합작회사' 형태의 민간기업의 투자를 희망한다고 하였음
- 또한 키크웨테 대통령은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항은 케냐의 몸바사(Mombasa)항보다 부룬디, 르완다 및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인도양에 더 가까우며, 부룬디 화물의 94%, 르완다 수입의 57% 및 수출의 67%가 도로운송을 통해 다르에스살람항에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음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위치>



<주요 연결 지역>



자료 : www.dailynews.co.tz, 2011.3.17. / www.bloomberg.com, 2011.3.18.

송주미 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DP World, 향후 2년간 9개 개발 프로젝트에 15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 DP World의 CEO인 모하메드 사라프(Mohammed Sharaf)는 향후 2년간 9개의 개발 프로젝트에 15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 그동안 추진해온 DP World의 투자 전략은 신규화물 창출을 위한 이머징 마켓과 녹색물류 구축에 대한 투자였으며, 2010년 한 해에만 10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음
 - 여기에는 녹색물류와 관련하여 두바이에 위치하고 있는 DP World 본사건물의 저탄소 배출 시스템 도입과 전 세계 DP World 터미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역장비인 유류사용형 RTG(Rubber Tiered Gantry)를 E-RTG(Electrified-RTG)로 전환하는 사업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DP World는 운영비용 절감과 2008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7% 저감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이머징 마켓과 녹색물류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전략에는 변함이 없으나, 향후 2년 동안에는 계획된 15억 달러의 대부분을 신규화물 창출을 위한 이머징 마켓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2011년에 집중 투자할 대상항만은 이집트의 소크나(Sokhna)항, 세네갈의 다카르(Dakar)항, 영국의 런던게이트웨이(London Gateway)터미널 등임
 - 이 계획은 최근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일고 있는 정치적 불안감의 영향을 전혀 받고 있지 않음. 이는 이 지역이 DP World가 집중하고 있는 신규화물 창출을 위한 타깃 마켓이기 때문임
- ※ 2010년 DP World의 경영성과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의 성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는데, 연간 총수익은 31억 달러(2008년 33억 달러), EBITDA는 12억달러(2008년 13억 달러)였으며, 총 처리물동량은 2008년 수준인 2,780만TEU(전 세계 50개 터미널 중 28개 터미널만 집계)에 이르렀음

자료 : CI-Online. 2011. 3. 28.

김찬호 책임연구원(☎ 02-2105-2908, chkim@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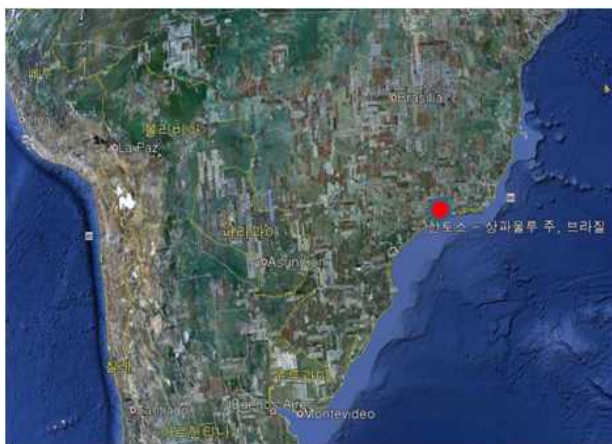
KMI 국제물류위클리

□ 브라질 BTP사 산토스항 신규 터미널 공사 자금 조달

- 2009년 BTP(Brazil Terminal Port)사는 산토스항 터미널 개발을 위해 160억 헤알(약 9.1억 불)을 투자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산토스항의 Alemoa지역에 액체벌크 터미널과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하는 계획임
 - 시설 규모는 110만 TEU를 처리하는 컨테이너 터미널과 120만톤 규모의 액체(주로 에탄올)를 처리하는 벌크터미널임
 - 투자 자금은 모기업인 Europe Terminal Ltd.사에 의해 제공되나 개발 및 운영은 자회사인 BTP사가 수행할 예정이며, MSC가 주요 이용자가 될 것임
 - 현재 컨테이너 터미널은 5,000TEU급 선석 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수심은 17미터임
 - 본 공사는 2012년 1/4분기 중 시작될 예정임
- 자금 조달 주체인 Europe Terminal Ltd.사는 소요 자금 미화 679만불을 국제금융공사(IFC)로부터 조달하기로 함
 - 나머지 582만불은 BNP Paribas, DNB 은행, ING 캐피탈, Santander은행 등으로부터 조달할 계획임

※ BTP사는 Europe Terminal Ltd.의 자회사로 모기업인 Euopre Terminal은 벨기에 Antwerp를 기반으로 한 전세계 42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임

※ MSC는 세계 2위의 스위스 국적선사로 현재 431개 선박을 소유하여 140만 TEU 운송능력을 가진 다국적 선사임



<산토스항 위치>



<산토스항 현재>

자료: 브라질 항만청(www.braporto.com.br) 2011/ www.cargosystem.net 2011.3.22

박철원 연구원(☎ 02-2105-2982, ironwon@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비용 지불),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